

영상으로 다시 복습하는 아동복지론

방학을 이용하여 아동복지에 대해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EBS 다큐프라임 : “복지국가를 가다”

복지 선진국의 복지 시스템을 거대담론이 아닌 사례중심의 생활 속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복지 선진국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의 복지의 길을 찾아주는 영상입니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1부>노동 <2부>의료 <3부>주거 <4부>보육 <5부>교육 <6부>노후

이 중에서 “4부 보육 편”을 보면 복지 선진국들의 아동복지 정책과 제도적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국가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무척 유용한 영상 자료입니다.

<관련 사진>



다음은 “영화를 통해 보는 아동복지”입니다.

2. 영화 : 스탠리의 도시락

외모, 공부, 노래, 춤까지 못하는 게 없는 학급의 1인자 “스탠리”...
하지만 이 완벽한 소년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가정 형편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것!! 하지만 매일같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마음 착한 친구들 덕분에 스탠리의 학교 생활은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신 베르마 선생님이 스탠리의 반 아이들의 풍족한 도시락을 습격하듯 먹어치우고 급기야 도시락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불호령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이 어린 꼬마 스탠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꼭 영화를 보면서 결말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동을 키우려면 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핀란드의 속담의 의미를 진심어린 감동과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련 사진>



3. 영화 : I am Sam

일곱 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샘 도슨은 버스정류장 옆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며 아내가 버리고 간 딸 루시를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수요일에는 레스토랑에, 목요일에는 비디오 나이트에, 금요일에는 노래방에 함께 다니는 것이 이들 부녀의 작은 행복..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가 7살이 되던 해 사회복지 기관 전문가가 이들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샘의 지능은 7살 수준이기 때문에 루시가 7살이 넘게 되면 샘이 루시를 정상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만일 샘이 그의 양육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루시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야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샘은 법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하고 정력적이며 자아도취적인 변호사 리타 해리슨과 도저히 이뤄질 것 같지 않은 연대를 맺게 됩니다. 리타는 단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료로 샘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루시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면서 아동을 위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진>

